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삼계탕, 포도, 중국, 수출, 검역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삼계탕, 포도, 중국, 수출, 검역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04. 29.
한·중 포도
수출 검역 협상 타결

2015. 10. 31.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2015. 09.22.
한국산 포도
중국 첫 수출

2016. 06.29.
삼계탕
중국 첫 수출



핵심이슈
도출

“對중국 삼계탕, 포도 수출 증가세”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對중국 삼계탕, 포도 수출 증가세

2015년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 상호 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입 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들어 삼계탕과 포도의 대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삼계탕은 그동안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 규정으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고 있던 품목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두 달 만에 2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은 중국 당국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와 통관 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 바이어를 통해 상해, 청도, 광저우, 위해 지역의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초도 물량 수출 이후 본격적인 중국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역·위생 지원은 물론,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추가 협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선포도는 한·중 양국이 식품검역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2015년 4월 과실류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수출에 성공했다. 이를 필두로 채소·과일류의 중국 수출이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에서 수출되는 캠벨 품종은 중국에서 생산 및 수입이 이뤄지지 않는 품종이어서 수출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할 경우 과수원과 가공공장은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해당정보는 수출 전에 한국동식품 검역국(이하 QIA)에서 중국 국가 질량 감독 검험 검역 총국으로 전달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농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증가세를 띄고 있으나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인 시장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인 중국이 요구하는 위생환경과 작업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신선 품목인 포도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위생증서 발급에는 약 3주가 소요된다. 또한 aT베이징지사에 따르면 매년 포도 재배기에, 중국에서 규정한 중점 관리 병충해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농약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한 농약은 반드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goo.gl/DaA8zP)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